

# 악취와의 전쟁, 이제 그만

### 전북도, 악취방지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방지 지원금을 늘리고 생활악취까지 방지키로 했다.

30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악취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요령에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비용 보조금 지

원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해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한다.

평소 시장·군수가 악취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게 하는 것 외에 악취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 도시사가 시장·군수와 함께 합동으로 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 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정당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의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각종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의 악취배출시설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의 악취개선 노력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NO 아베’ 손피켓으로 가득찬 풍남문 광장

30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0여 개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역사왜곡·경제보복·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NO 아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역사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조성한다

### 익산시, 2022년까지 관광 인프라 구축·관광객 유치 본격화

익산시가 올해부터 4년 동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의 역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기반 조성부터 홍보 마케팅 활동 등 연도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교도소세트장과 문화예술의 거리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교도소세트장은 또 다른 테마를 접목시킨 세트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산책로까지 연결시켜 짧은 세

때들이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도비를 포함해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반조성 절차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조성한다. 보석박물관 일원에 보석광장과 보석숲, 야간경관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공룡테마공원을 정비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한다.

도심에 위치한 문화예술의 거리에 이도, 교도소세트장은 또 다른 테마를 접목시킨 세트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산책로까지 연결시켜 짧은 세

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토요일상공연과 입주청년 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

20년 만에 보수작업을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된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제왕도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익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출도된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익산 국립박물관을 올해 안에 개관하고, 가상체험관이 설치되는 백제왕궁 역사관과 가상체험관,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금마 고도지구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까지 대부분의 기반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후부터 관광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장민천 기자

## 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점검 실시

전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6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 점검한다

다. 이번 특별점검은 58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 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1~2

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야영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도내 야영장에 대한 58개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에는 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2,800천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휴가철 맞아 휴양복지시설 본격 가동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서비스 향상 등 이윤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울창한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산림욕을 즐기며 자연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

림이 가족단위 웰빙 휴양지로 인기를 끌면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이 흐르는 산림휴양 복지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도내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복지시설 26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시설안전, 종사자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

는 등 성수기 손님맞이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로, 휴양시설 내 물놀이장, 화장실, 취사장, 침구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와 전기·가스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시설 보수와 배수로를 정비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올봄 아카시아 꽃 ‘만발’ 양봉농가 미소 ‘만개’... 추가 지원으로 활력 더해

전북도는 올해 아카시아 천연벌꿀 작황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 급감했던 농가소득이 올해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5월 초 아카시아 나무 꽃 개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평균 기온이 25C를 상회하는 날씨가 계속되어 꽃대가 잘 형성되고, 아카시아꿀 채취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평년보다 약 10~20% 꿀

채취가 증산된 것이다.

늘어난 벌꿀 수확에 발맞추어 전북도는 기존 5개 지원사업에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7개 사업 23억원을 지원해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한다.

추가 지원되는 2개 사업은 소비자에게 양봉의 체험과 교육을 통해 양봉산물의 소비를 유도하는 ‘양봉산물 정보제공사

업’과 벌의 꿀 생산능력이 30%이상 높은 장원벌을 공급하기 위한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이다.

전북도는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일련의 사업을 바탕으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건축물의 인권침해 요인, 배우고 모니터링하자!

### 전북도,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공건축물에 평등성과 인권 접근 방안 모색

전북도가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30일, 제2기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 150명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은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도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배려 받는 ‘인권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자 건축사무소 ‘노릇돌’의 소장인 이윤하 소장이 강사로 나서 ‘건축과 인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인증 기준 모니터링 방법, 모든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 등 인권건축물의 특성과 적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공공청사에 평등성과 인권을 어떻게 접목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은 교육과 토론을 통해 14개 시·군 공공건축물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주민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배우고 도내 공공건축물의 인권건축물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에 참여한 도민인권지킴이단원은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인권시책 모니터링, 제도개선의 범위가 공공시설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는 인권 건축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 열경형 인권담당관은 “올해는 작년에 구성된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시기이다”라면서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인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도정 전 분야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여나가는 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